3개大 불교동아리 창립…"韓불교 미래 견인"

용주사, 3월 30일 불교동아리 창립법회 봉행

경희대 국제캠 등 대학 3곳
상월결사, 1000만원씩 지원

화성=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한국불교 미래를 견인하기 위한 대학생 전법이 불교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남부지역 3개 대학이 불교동아리를 창립하고 전법을 향한 힘찬 걸음을 내딛었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효 스님)는 3월 30일 경내 관음전에서 '불교동아리 창립 및 학생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경희대 국제캠퍼스, 한경국립대 안성캠퍼스,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캠퍼스에서 불교동아리가 창립,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경기남부지역 대학에서 대학생 전법의 결실이 맺어지기까지는 용주사의 역할이 컸다. 2023년 11월 주지 성효 스님과 전법단 지도교수 6명이 1차 간담회를 가졌고, 올해 2월 2차 간담회를 거쳐 3개 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에 이르게 됐다. 경희대 국제캠퍼스 불교동아리 지도법사는 봉녕사 승가대학 학감 도연 스님, 지도교수는 이효인 연극영화과 교수다. 엄상철 동아리 회장 등 24명이 활동한다. 한경국립대 안성캠퍼스는 안성 운수암 총무원준 스님이 지도법사를, 이득민 동물학과 교수가 지도교수를 맡았다. 회원은 이유진 동아리 회장 등 6명이다.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캠퍼스는 용주사 연수국장 담소 스님이 지도법사로, 박치완 철학과 교수가 지도교수로, 곽재준 동아리 회장 등 24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다.

주지 성효 스님은 "여러분들이 불교동아리에서 활동할 1~3년이라는 기간은 부처님과 맺은 인연 고리가 어떻게 한평생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방향성을 알려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늘 최선을 다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응원했다.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대학 3곳에 창립지원금 각 1000원만과 각 학교 지도교수들에 격려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일감 스님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틀렸다고 느끼는 것에 배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 치우치지 않은 중도의 삶에서 행복의 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3월 30일 용주사서 봉행된 불교동아리 창립법회에 동참한 한경국립대 등 경기남부지역 3개 대학 학생들은 캠퍼스 포교를 통해 불교 알리기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불교동아리 창립 주인공들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엄상철 경희대 불교동아리 회장은 "경희의 이름으로 전진하라는 학교 슬로건처럼, 불교화 함께 삶을 전진하겠다"고 했고, 강유진 한경국립대 불교동아리 회장은 "불교를 알리기 위해 캠퍼스 포교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곽재준 한국외국어대 불교동아리 회장도 "코로나19 이전 교내 불교동아리가 있었는데 명맥이 끊겨 고민이 많았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으니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엄상철·제한비 학생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한계 짓지 않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운 마음을 이어나가는 대학생 불자로서 모습을 지켜나가도록 정진하겠다"며 "이 법회 인연 공덕으로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롭길 서원하며, 불교동아리가 나날이 발전하길 불보살님께 발원한다"고 염원했다.

사노위, 제주4·3 추모…"억울한 죽음 더는 없길"

4월 3일 독립공원 4·3추모공간서
희생자 극락왕생 명예회복 발원

76년 전 극한의 이념대립으로 목숨을 잃은 3만여 제주도민의 극락왕생과 그들을 보호하다 화를 입은 제주불교계의 명예회복을 발원하는 추모재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4월 3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 마련된 4·3사건 76주년 추모공간에서 4·3 희생자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4·3사건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물이 위패를 대신했다.

사노위원이자 4·3사건 희생자유족인 법상 스님은 "저 역시 4·3 당시 할아버지가 화를 입어 지금까지 크나큰 상처로 남아 있다"며 "억울하고 잔혹하게 돌아가신 4·3사건 희생자분들과 스님들이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제정됐다고는 하지만 미군의 책임이 누락되는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우리가 정확하게 미군의 사과를 받고 진실규명을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4 · 3 희생자 추모재 동참자들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제주불교계의 명예회복을 발원했다.

유족 대표 인사는 박진우 전 제주4·3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전했다. 박진우 전 위원장은 "제주불교계는 4·3 당시 서북청년단의 폭력으로부터 제주도민들을 보호하다 15명의 스님이 돌아가시고 35개의 사찰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다"며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15명의 스님을 해친 가해자들을 밝히고, 다시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말 후 참석 대중들은 스님들과 함께 4·3사건 추모공간을 돌며 제주도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제주불교계의 명예회복을 발원했다.

허상수 4·3유족회 공동대표는 "매년 불교계에서 4·3사건 희생자들을 위해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다"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불교계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동자승 단기출가, 올해는 봉선사서

6~7세 어린이 대상…4월 12일까지 접수

불기 2568년 갑진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기간 홍보대사 역할을 맡는 동자승들이 올해는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에서 활동한다.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부처님오신날의 기쁨을 시민에게 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동할 동자승이 이번에는 봉선사에서 삭발 수계 후 단기출가를 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 동자승 단기출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지난해 4년 만에 재개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올해는 조계사가 아닌 봉선사로 출가도량을 옮기면서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선원 개방을 결정했다. 용맹정진하는 스님들의 수행처인 선원을 동자승에게 배려한 것. 동자승 출가가 선원에서 이뤄지는 건 봉선사가 최초다.

호산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동자승이 되는 것은 세세생생 선근이 있어야만 가능한 귀중한 인연"이라며 "동자승들이 부모의 품에서 떨어져 지내는 동안 무럭무럭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원 개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봉선사는 현재 광릉숲을 중심으로 동자승들이 청정한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 놀며 즐거운 출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부대중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자승은 6~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화(031-527-1951) 또는 봉선사 홈페이지(www.bongsunsa.net)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마감 후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윤호섭 기자

보리수아래, 장애 인식개선 '작은 토론회'

4월 20일, 전법회관 보리수실
불교계 내부 장애인 인식 살펴

장애인 불자 모임 보리수아래가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는 4월 20일 서울 전법회관 보리수실에서 '내가 생각하는 장애, 우리가 함께하는 장애'를 주제로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토론회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이들과 함께하는 불교계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장애인의 신행활동과 불교계 내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나눈다. 장애인이 우리 지역사회 당당한 구성원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정책과 주체적 모범 사례 등을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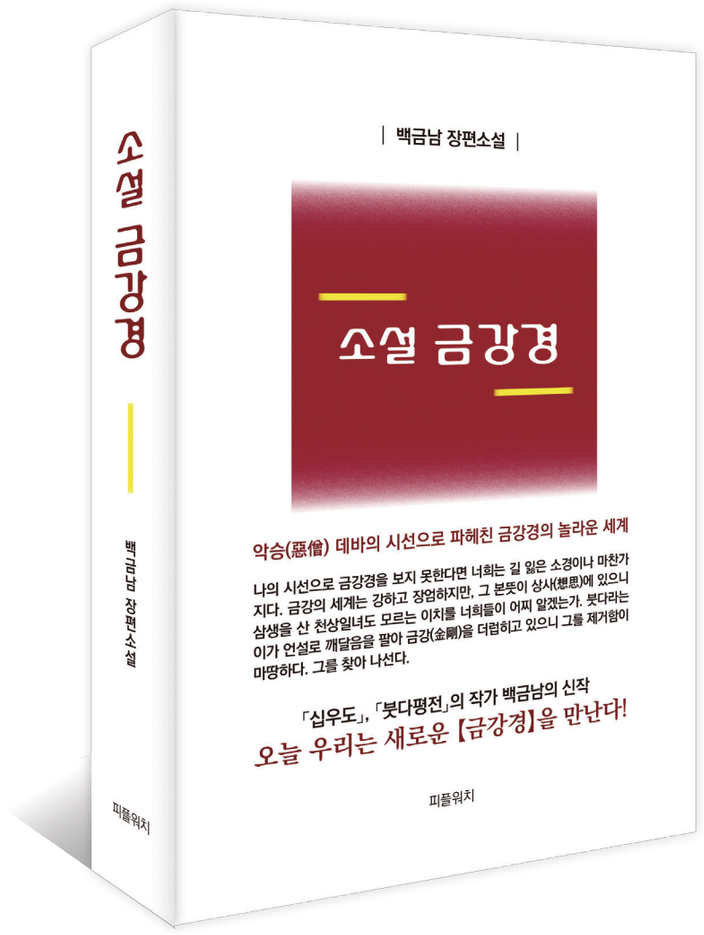
토론회는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장애인의 마음알기'에서는 고명숙·이순애·홍현승·성희철 씨 등 보리수아래 회원들이 나서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을 들려준다.

두 번째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는 이계경 조계종 전문포교사가 '장애인과 함께하며 느낀 점들'을, 조남선 계간 국제문단 발행인이 '문학활동을 통해 본 장애인의 역량'을, 임은호 현대불교신문 기자가 '불교언론과 장애불자들의 포교활동'을, 김귀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복지지원자로서 보는 장애활동의 가능성'을 발표한다.

세 번째 '희망을 만들며'에서는 이상복 전 파주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장이 '내가 바라는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조계종 장애인전법단장 해성 스님이 '불교계의 바른 장애인 인식을 위한 스님의 역할'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 '나도 한마디'에서는 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최명숙 대표는 "이번 작은 토론회는 불교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실질적으로 어떠한지를 들어보고 장애인들이 사회 변화 속에서 대중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등 좋은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다. 이 자리가 장애인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동참을 원하는 사람은 보리수아래 사무국(02-959-2611) 또는 홈페이지(https://cafe.naver.com/borisu0708)로 문의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소설 금강경

깨달음을 버리고 벼락처럼 깨침을 얻는다!

「십우도」, 「붓다평전」의 작가 백금남의 신작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금강경】을 만난다!

악승(惡僧) 데바의 시선으로 파헤친 금강경의 놀라운 세계

나의 시선으로 금강경을 보지 못한다면 너희는 길 잃은 소경이나 마찬가지다. 금강의 세계는 강하고 장엄하지만, 그 본뜻이 상사(想思)에 있으니 삼생을 산 천상일녀도 모르는 이치를 너희들이 어찌 알겠는가. 붓다라는 이가 언설로 깨달음을 팔아 금강(金剛)을 더럽히고 있으니 그를 제거함이 마땅하다. 그를 찾아 나선다.

저자 백금남 | 값 18,000원

피플워치 02-352-3861

천하의 지식인이여,
내게 와서 물으라
- 탄허 큰스님 이야기 -



백금남 지음

신국판 533쪽 | 피플워치 | 값 26,000원

화엄학의 종장으로서 특히 예언에 밝았던 탄허당 택성 대종사. 작가는 자신의 종명일까지 예언한 스님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왜 그가 화엄학에 그토록 몰두했는지 이해하게 된다. 수많은 그의 예언들... 그것이 허명에 의한 술(術)의 경지가 아니라 도(道)의 경지에 입각한 것임을 깨닫는다.

사람들은 오늘도 묻는다. 스님, 자신의 종명일까지 예언하셨다면서요? 종명일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갈 해, 갈 날, 갈 시'까지 예언하셨다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역사의 질곡마다 해왔던 예언들.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월악산에 달이 떠오르고, 젊은 지도자는 성냥갑 놀이를 할 터인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나의 예언에 초점을 맞추리라. 그것이 세상의 인심이다. 혼돈의 시대, 당위의 미래학을 펼칠 수밖에 없는 화엄승의 희망을 이해하기 어려울 테지만 그러나 그 인심 속에 희망이 있다. 바람 속의 꽃이 역사기 되듯이 화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리라는 희망이 있다.